

찬 양



주 은혜임을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시선과 고난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인가나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 네] 하나님, 학교나 일상 속에서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온 가족]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 감옥 문을 열어주며 전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복음)을 다 전하라!)

Q2. 학교나 학원,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이 신경 쓰여 쑥스럽거나 주저했던 일을 나누어 보아요.

Q3.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순간 1가지를 결단해 보아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10월 셋째 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이번 여름 해외 선교를 다녀온 중학교 2학년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깔끔한 성격이라 낯선 환경과 위생 문제 때문에 출발 전부터 걱정이 많았고, 처음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건넬 때는 두렵고 쑥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첫발을 내디뎠을 때,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했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갇힌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주의 사자(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고는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

다음 날 아침,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미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경고했는데 왜 또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치냐?"며 추궁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29)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학업, 친구 관계, 일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규칙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주 은혜임을 다 같이

말씀봉독 사도행전 5장 17~32절 다 같이

말씀 도우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도들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양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